

# 陰路技術 紙上相談

## 香附子是 우리나라 中南部地方이 適地

복통 · 토사 · 각기 · 토혈 · 빈혈 · 대하등 治癒

【문】 향부자의 생육에 알맞는 재배적지와 약용효과?

【답】 향부자는 따뜻한 기후에 잘 성장하므로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에 많이 재배한다. 그러므로 적지로서는 남부지방으로서 토질은 너무 비옥하지 않고 중등의 걸기로서 사질양토가 적당하다.

식질토양에서도 잘 자라지만 수확기에 노력이 많이 들며 너무 비옥한 땅은 경엽이 무성한 반면에 약용부인 뿌리의 발육이 좋지 못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재배상의 주의할점은 심은후 20일이 경과하면 싹이 트므로 일반작물과 같이 손질을 하여 주고 자라는 상태에 따라 시비를 할때는 질소질 비료로 될수 있는 한 적게주고 뿌리거름인 칼리, 인산질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예로서 10a당 잘씩은 퇴비 50kg, 과인산석회 50kg, 초목회 50kg을 기비로 시비하며 추비(웃거름)는 생육상태를 보면서 지나치게 지상부가 허약하면 질소질 비료를 조금 시비한다.

향부자의 약용효과로서는 그

성능으로 볼때 맛은 약간 매우면서도 쓰고 단맛이 있고 향기가 있으며 血中の 기약으로서 12경 8맥의 기분을 통행시켜 인체의 기를 주로 치유시키므로 복통 · 석출 · 토사 · 담음 · 신기 · 각기 · 토혈 · 빈혈 · 대하 또는 월후불조 및 창상의 백병을 치유한다.

한방에 주된 처방으로서 향갈탕이라 하여 창출 · 소엽 · 백작약 · 향부자승마 · 건갈 · 진피 각 4g, 천궁백지각초 각 2g, 생강 3편, 파 2개 등으로 달여 복용하면 상한병에 음증 양증의 구별없이 양편 모두 감증이 되어 두통이 있고 추웠다 더웠다하는 증상이 있을때 응용되고 있다.

× × × ×

### 대추를 民間療法으로 利用 해소 · 신체동통에 特効

【문】 대추를 민간요법에 이용하는 방법

【답】 대추는 우리나라 각지에 재배되고 특히 중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 대추는 오래전부터 감 · 밤과 같이

삼색 과실로서 관혼상제에 없어서는 안되는 예제물로 알고있고 또 음식만드는때에 고급으로 쓰이며 그 용도가 다양하다.

한방에서는 이노 · 강장약으로 근육의 급박증상, 지각과민을 완화시키고 해소 · 신체동통 · 통동에 주로 사용되는등 약방감초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한방중 방약합편 수계처방 400여개중 60여 처방에 대추가 들어있는 것을 보아도 그 용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민간요법으로는 여러분야에 쓰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몇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예를 들어본다.

대추가 들어있는 한약처방을 보면 대개 완화제로 보약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약효를 완만하게 하고 또 독성을 중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가정약으로 밤 · 대추 · 구기자 · 맥문동 · 천문동 각 10g에 물 500cc로 그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1일 3회 식후 1시간후에 복용하면 노인들의 건강유지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또 감기몸살 뒤의 해복기에도 작약 · 당귀시호 각 3g에 대추 5g 물 500cc를 부어 그물이 반량이 될때까지 다려 식전 1시간 전에 1일 1회 복용하면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보양제로 음료수겸 차로마시고자 할때는 대추 30g을 물 1l로 달여서 식간에 마셔도 좋다.

## 施設菜蔬의 着果促進방법은?

PCPA使用할 경우 高温時 10~12PPm이 적당

【문】 시설채소에 식물생장조절제의 사용법

【답】 토마토가 정상적으로 생육하여 개화할 경우에는 꽃대(花柱)가 꽃가루주머니밖으로 신장하여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꽃가루주머니가 터지게 되므로 꽃의 암술머리(柱頭)에 많은 꽃가루가 묻게 되어 수정이 잘 된다.

그러나 시설 재배를 하게 되면 광선이 약하고 온도가 높거나 낮아지는 등의 불량환경으로 인하여 기형화의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분 조작용을 하지 않으면 수정이 안되어 낙화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재배를 할 경우에는 착과촉진대를 처리하여 착과를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PCPA를 이용할 경우 고온시에는 10~12PPm, 저온시에는 20~30ppm이 각각 적당하고 토마토튼을 이용할 때에는 고온시에는 100배액으로 저온시에는 50배액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1화방 1회 처리로서 결실을 이 높은 처리시기는 각화방의 제 1번화가 개화한후 2일째이다 일반적으로 각화방의 꽃이 3~5개 개화하였을 때에 처리

하면 된다.

처리방법에는 화방분무법과 화방침지법이 있는데 화방분무법이 적당하다. 처리부위는 화방이며 전면(前面)에서 극소형 분무기로 분무하여 화방전체가 젖을 정도로 처리하고 잎과 줄기에는 약액이 닿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온도와 습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처리하면 결실이 증가하고 과실의 비대가 잘 되나 속이빈 과실(空洞果)의 발생이 많아질 염려가 있으니 환경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호박은 자웅동주식물(雌雄同株植物)로서 곤충에 의하여 수분(授粉)이 이루어진다. 호박을 저온기에 하우스나 텀내에서 재배할 때에는 화분을 옮겨(花粉媒助)주는 곤충이 없으므로 방치할 경우에는 수분이 되지않아 낙화하게 된다.

따라서 착과 시키려면 인공수분을 하던가 약제처리를 하여 단위결실(單位結實)을 유지시켜야 된다.

처리약제로는 나프타린초산 칼리 또는 2.4-D가 적당한데 전자일 경우에는 100~200배액으로, 후자일 경우에는 5만~

10만배액으로 각각 조제하여 붓으로 주두에 발라 처리하면 된다. 처리는 개화당일 오전 8시까지는 끝마쳐야 착과율이 높아진다.

한지형(寒地型) 딸기는 가을에 깊은 휴면에 돌입하게 된다 휴면은 11월 하순경에 가장 깊고, 이후 저온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차차 휴면이 타파되어 다음해 2월초에는 휴면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촉성재배 또는 반촉성재배를 할 경우에 보온시기가 너무 이르면(1월 이전) 아직 휴면이 타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와 수분등 환경조건이 적당히 유지되어도 생육은 극히 부진하게 된다.

이와 같이 휴면상태에 놓여 있어 생육이 잘 안되는 딸기에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생육이 촉진되고 개화가 빨라지며 개화수도 많아져 수량이 증가된다.

지베렐린을 5~10ppm(20만배~10만배)용액으로 조제하여 2회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 1회는 하우스를 설치하여 보온을 시작한지 2~3일 경에 제 2회는 제 1회처리 1주후에 각각 분무기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